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2년 3월 6일
(화요일)

강북신문 1면

강북구의회 임시회 7일 개회
정례회 운영일정 안건 처리도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3월 2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제15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20일로(제4조 1호),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2월 1일로(제4조 2호) 각각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도연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포스트신문 4면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2012년 3월 2일 11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제15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결정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20일로(제4조 1호),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2월 1일로(제4조 2호) 각각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도연 의원이 발의하였다.

동북일보 5면

강북구의회 기업형 마트 의무휴일 관련 간담회

휴무일 지정할 때 인접 구와 협의해 똑같은 날로 정해야 효과적
실제 실효성과 과연 휴무제를 통해 눈에 띄는 이득이 있을지도 의문

▲강북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SSM 기업형 마트 강제 휴무일 지정 관련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의견 수렴 간담회' 장면.

SSM 기업형마트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침입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2회 강제휴무일 지정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소비자의 권리, 기업형 마트의 입장,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입장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쪽을 억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의정연구실에서 SSM 기업형 마트 강제 휴무일 지정 관련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는 SSM 기업형마트가 131개가 있으며 그 중 10개가 강북구에 있고 요일별 매출 추이를 분석해보면 평일 11.5%, 토요일 20%, 일요일 23%로 주말이 평일의 2배의 매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군성 의장, 박성열 위원장, 박문수 이종순 강남연 이성희 이순영 의원 등이; 전통시장에서는 안영승 회장(수유시장), 김용원 상무(우이시장), 정천조 회장(강북시장), 송용철 회장(중앙시장), 이천문 회장(북부시장), 정영모 상무(승인시장), 심희섭 회장(본마트) 등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정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북갑)이 잠시 들러 격려를 해주고 갔다.

박성열 위원장은 "조례제정은 재벌 유통업계의 횡포에 몰락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한 상생의 경쟁력은 그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날을 휴무일로 정해야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지 의견교환을 해서 4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구만 의무휴일 조례를 정하는 것 보다 인접 구에서도 같은 날 휴무가 되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장사하는데 다소의 매출의 영향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천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청결하고 친절하며 가격도 정확히 적혀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분위기만 갖고는 안 된다", "택배 시스템의 변화로 배달문제 개선과 포장에도 신경을 써야하고 가격대를 떠나서 제품의 다양성과 질 향상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실시와 함께 대형마트 쉬는 날 재래시장 가는 날로 장보기 운동을 홍보하여 가격 할인 하는 날로 정하고 이벤트도 준비하면 재래시장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쇼핑도 강화하면 어떨까?" 등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의무휴일 강제지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박문수 의원은 상인들의 애기를 듣기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며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강제휴무 조례제정에 의구심이 들고 실제 실효성과 과연 휴무제를 통해 눈에 띄는 이득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차라리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약간의 효과가 있겠지만 시설개선과 자본에서 못 따라가고 설사 휴무일 쉰다고 해도 그 다음에 갈수도 있고 인근 구로 가서 구매할 수도 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늦게 가도 상관없다. 그것은 소비자의 자유이자 선택사항이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유군성 의장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면서 "지자체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25개구 의장단회의에서 강제휴무제정을 각 구 동일하게 정하기로 협의했지만 소비자의 권익보호 취지에서 절대 반대하는 의장들도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통시장이 이런 상황에 처한 데에 대한 안타까운 푸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는 강제 휴무지정일의 필요성과 휴무일을 지정할 때 반드시 인접 구와 똑같은 날짜에 정하더라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매출에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분위기였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hanmail.net〉

강북신문 5면

기업형 마트 휴무일 지정과 관련 강북구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기업형 마트 휴무일 지정위한 간담회 가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 전통시장 상인회와 의견나눠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이 월 2회로 지정될 전망이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SSM 기업형 마트 휴무일 지정과 관련 강북구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성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 기업형 마트에 대하여 월 2회 이내로 휴무일을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됐다"라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 "재래시장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고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와 SSM의 휴무일에 전통시장이 문을 열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상인회 대표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수유시장 안영승 회장을 비롯한 우이시장 김용원 상무, 강북시장 정천조 회장, 중앙시장 송요철(방경숙)회장, 북부시장 이천문 회장, 숭인시장 정명모 상무, 본마트 심희섭 회장 등은 "대부분 각 시장의 특성도 있지만 인근 자치구와의 조율도 필요하다며 인근 구와 함께 같은 날로 정한다면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 수 있을 것"이라며 더 크게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같은 날로 지정되었으면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서 이종순 의원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카드 및 포인트제도 도입, 이순영 의원은 주차장 확보, 강남연 의원은 제품의 질 향상, 박문수 의원은 재래시장의 자구노력, 이성희 의원은 재래시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밝혔고, 전통시장 세일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의 도입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정양석 국회의원은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한 단계씩 차례로 도와 드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고, 유군성 의장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날을 휴일로 정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북구에는 10개의 SSM 기업형 마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시행령이 3월 중으로 내려오면 4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포스트신문 8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마련한 SSM 기업형 마트 휴무일 지정과 관련 강북구 전통시장 상인회장과의 간담회서 정양석 국회의원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하고 있다.

SSM 기업형 마트 휴무일 지정 의견수렴 나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실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이 월 2회로 지정될 전망이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SSM 기업형 마트 휴무일 지정과 관련 강북구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성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 기업형 마트에 대하여 월 2회 이내로 휴무일을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 되었다"고 했다.

또 "재래시장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고견을 당부 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정양석 국회의원은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한 단계씩 차례로 도와 드리려 하고 있다"며 이 자리서 많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유군성 의장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같은 날을 휴일로 정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문수 이순영 강남연 이종순 이성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의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와 SSM의 휴무일에 전통시장이 문을 열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상인회 회장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수유시장 안영승 회장, 우이시장 김용원 상무, 강북시장 정천조 회장, 중앙시장 송요철(방경숙)회장, 북부시장 이천문 회장, 숭인시장 정명모 상무, 본마트 심희섭 회장들은 대부분 각 시장의 특성도 있지만 타구와의 조율도 필요하다며 인근구와 함께 같은 날로 정한다면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 수 있을 것 같다며 더 크게는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같은 날로 지정되었으면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 및 포인트제도 도입(이종순 의원) 주차장 확보(이순영 의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필요성(박문수 의원) 품질 향상(강남연 의원) 밝은 이미지 확보(이성희 의원) 이밖에도 유니폼 착용, 기업형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하루 정해 전통시장 세일의 날 운영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북구에는 10개의 SSM 기업형 마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시행령이 3월 중으로 내려오면 4월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북신문 2면

'제도개선사항 서울시 조례로 개정'

박문수 의원, 건축심의위 구성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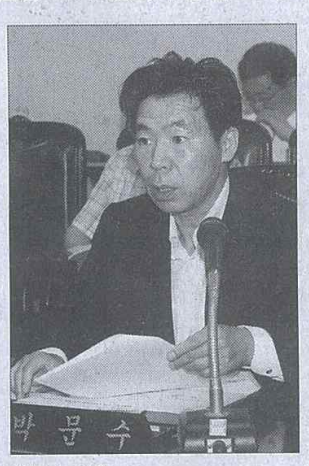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승호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가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이루어낸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문수 의원은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되어 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선정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 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것을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지정하는'으로 수정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순번으로 정하여 참석여부를 타진한 후 참석 가능한 위원을 위원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회에 건의한 제도개선사항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가 이루어져 매우 기쁘며 또한 대표발의를 한 신승호 시의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축행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믿음을 못주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이 건축행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포스트신문 4면

박문수 의원, 서울시 조례 개정 성과 이뤄

건축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가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이루어낸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문수 의원은 현행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되어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선정 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 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것을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지정하는'으로 수정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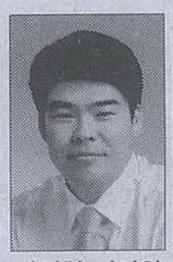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순번으로 정하여 참석여부를 타진한 후 참석 가능한 위원을 위원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박문수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회에 건의한 제도개선사항이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가 이루어져 매우 기쁘며 또한 대표발의를 한 신승호 시의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축행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믿음을 못주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이 건축행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포스트 4면

'장애인콜택시 강북구차고지 마련된다'

'북서울 꿈의숲 주차장으로 이전' 내용 청원 서울시의회 접수



박진형 시의원 구본승 구의원

통합진보당 구본승 강북구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진형 시의원(강북4)이 힘을 모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차고지를 북서울 꿈의 숲 동문주차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이번 청원은 구본승 구의원을 대표 청원인으로 하여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콜택시 이용 주민 등 1,019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을 박진형 시의원이 소개하여 서울시의회에 접수됐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현 삼양동 소재 청암차고지)의 접근로 경사(특히 겨울철 빙판, 눈길)가 심해 운행이 어렵고, 주택가 안쪽에 있어 야간 진출입시 소음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변 여건상 부적합하므로,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번2,3동)에 인접한 북서울 꿈의 숲 동문주차장으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이전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리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접수된 청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2월 20일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심사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회기 일정상 4월 18일에 개최되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을 소개한 박진형 시의원은 "청원의 취지에 동의하며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표 청원인인 구본승 구의원은 "차고지 이전을 위해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왔지만 해결책이 안보여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됐다. 서울시는 청원 취지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차고지를 이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북신문 7면

'장애인콜택시 강북구차고지 마련된다'

'북서울 꿈의숲 주차장으로 이전' 내용 청원 서울시의회에 접수

구본승구의원 대표청원인·박진형시의원 소개 의원으로

구본승 구의원 박진형 시의원

통합진보당 구본승 강북구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진형 시의원(강북4)이 힘을 합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차고지를 북서울 꿈의 숲 동문주차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2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이번 청원은 구본승 구의원을 대표청원인으로 하여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콜택시 이용 주민 등 1,019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을 박진형 시의원이 소개하여 서울시의회에 접수됐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현 삼양동 소재 청암차고지)의 접근로 경사(특히 겨울철 빙판, 눈길)가 심해 운행이 어렵고, 주택가 안쪽에 있어 야간 진출입시 소음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변 여건상 부적합하므로,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번2,3동)에 인접한 북서울 꿈의 숲 동문주차장으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이전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리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접수된 청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2월 20일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심사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회기 일정상 4월 18일에 개최되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을 소개한 박진형 시의원은 "청원의 취지에 동의하며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표 청원인인 구본승 구의원은 "차고지 이전을 위해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왔지만 해결책이 안보여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됐다. 서울시는 청원 취지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차고지를 이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북일보 4면

장애인콜택시 강북구차고지 이전' 서울시의회 청원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번동지역 북서울 꿈의 숲 동문주차장 요구

통합진보당 구본승 강북구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진형시의원이 힘을 합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강북구차고지를 북서울 꿈의 숲 동문주차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2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접수하였다.

청원은 구본승 구의원을 대표 청원인으로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콜택시 이용 주민 등 1,019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을 박진형 시의원이 소개하여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현 삼양동 소재 청암차고지)의 접근로 경사(특히 겨울철 빙판, 눈길)가 심해 운행이 어렵고, 주택가 안쪽에 있어 야간 진출입시 소음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변 여건상 부적합하므로,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번2, 3동)에 인접한 북서울 꿈의 숲 동문주차장으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이전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리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접수된 청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2월 20일에 회부되었지만 아직 상정, 심사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회기 일정 상 4월 18일에 개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을 소개한 박진형 시의원은 '청원의 취지에 동의하며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표 청원인인 구본승 구의원은 '차고지 이전을 위해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왔지만 해결책이 안보여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청원 취지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차고지를 이전해달라'는 입장이다.

(최동수 기자 cdsoo12000@